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 젠더 페미니즘과 한국 기독교의 과제

곽혜원 박사¹⁾

1. 문제 제기: 해체의 시대 문명과 인류 문명사적 위기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이전 세기와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인류 문명사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사실 우리는 '전쟁의 세기'로 일컬어졌던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했었는데, 지난 세기 내내 전 세계를 참혹한 이데올로기 냉전체제로 몰고 갔던 맑시즘(Marxism)이 마침내 종언을 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다시금 인류의 미래에 대해, 인류 문명에 대해 한층 더 심화된 불안감을 감지하고 있다. 맑시즘은 한동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듯했으나, 오늘날 21세기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기사회생(起死回生)하였다. 즉 북미와 서유럽에서 맑시즘에 근간한 패륜적인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를 확산시킴으로써, 과거 구소련과 동유럽에서의 공산주의 체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인류 문명을 가공할만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인류는 어느 시대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기 마련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는 과거의 위기와 전혀 성격을 달리한다.

오늘날 문명의 행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동향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자연질서를 해체시키려는 거대한 움직임이다. 최근 들어 글로벌 거대기업들,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 산업(IT) 거부들이 발 벗고 나서서 불멸(不滅)을 실현해줄 생명의 묘약을 찾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와 과학자, 의학자들 역시 종교의 도움 없이 육체적 영생(永生)의 문을 열어줄 열쇠를 발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멸과 영생 프로젝트에 돌입한 글로벌 기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구글(Google)은 2013년에 바이오 벤처회사인 '칼리코'(Calico)를 창립하면서 '죽음의 해결'(Solve Death)을 창립목표로 내세웠는데, 구글의 엔지니어 이사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유력한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R. Kurzweil)은 2045년 이후에는 종교나 죽음에 대한 찬미는 모두 과학 이전 사회의 유물이 될 거라고 공언하고 있다.²⁾

그런데 인간의 삶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죽음을 해체시키려는 움직임보다 더 경악할만한 일이 우리 문명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어떤 무신론자도, 불가지론자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성별(性別)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철폐하려는 가공할만한 움직임이다. 성별의 해체를 부르짖는 최선봉에 선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의 대표주자 주디스 버틀러(J. Butler)는 미셸 푸코(M. Foucault), 질 들뢰즈(G. Deleuze) 등의 영향을 받아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 틀 자체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인간의 출생 시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문화·심리적 성인 '젠더'(gender)³⁾를 통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임의대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변함으로써 남녀 고유의 천부적 성정체성을 허물어

1)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한세대와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독일 튀빙겐(Tübingen) 대학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Dr. theol.)를 받았다. 현재 21세기 교회와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연구공동체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를 이끌고 있다. 저서로는 Das Todesverständnis der koreanischen Kultur(한국문화의 죽음이해), 『현대세계의 위기와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론 전통과 실천적 삶』(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자살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한국출판문화진흥원 우수저작), 『제2종교개혁이 필요한 한국교회』(공저),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공저), 『죽음 묵회』(공저), 『과학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공저)가 있으며, 역서로는 워르겐 몰트만(J. Moltmann)의 저서들 『절망의 끝에 숨어 있는 새로운 시작』,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희망의 윤리』를 번역하였다.

2) 박승혁, “21세기 에디슨” 도발 예언 ... ‘2045년 되면 인간은 죽지 않는다’”, 『조선일보』(2013.07.20).

3)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대학병원의 정신과 의사이자 성심리학자 존 머니(J. Money)는 ‘젠더’라는 단어를 실험적으로 응용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당시 젠더의 의미는 ‘성별 구분이 매우 애매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 곧 출생시 남녀의 판명이 어려운 상태의 사람이라는 뜻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 곧 사회적·문화적으로 길들여진 성, 혹은 여성다움·남성다움을 통칭한다: 김영한 외,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서울: 킹덤북스, 2016), 11f.

버리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인간 존재의 본질이 되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정체성이 파괴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때, 이것은 인류 문명사적으로 대단히 가공할만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장구한 세월 동안 인류 사회를 보편타당하게 지배해왔던 관습과 규범이 지난 50년 사이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다.⁴⁾ 천부적으로 부여된 남성과 여성 고유의 신체적 기능은 물론 남녀 양성이 결합하여 이루는 가정 및 결혼제도 역시 해체되고 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성한 결합인 일부일처제(monogamy)를 해체시키고, ‘인권’이나 ‘성적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레즈비언적(lesbian)·게이적(gay)·바이섹슈얼적(bisexual)·트랜스젠더적(transgender)·간성적(intersexual) 파트너십을 대안적 생활 공동체로 제안하는 글로벌 성혁명(global sexual revolution)을 강행하는 것이다.⁵⁾ 이를 통해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규범을 와해시키고 도덕적·윤리적 기준의 해체를 강요함으로써, 예로부터 전승된 덕성·도덕·정절과 같은 숭고한 가치개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젠더 이데올로기의 내용(자유·쾌락·해방 등)으로 포스트모던 세계를 잠식해나가고 있다. 이것이 인류 문명사에 어떤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인지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본고는 성차별적·남성 중심적 체제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의 인권신장 운동에서 출발한 페미니즘(feminism)이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을 거쳐 성별의 해체를 감행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는 과정과 그로 인한 폐해, 급진적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젠더 페미니즘이 강행하는 글로벌 성혁명의 핵심전략인 ‘젠더 주류화’의 문제점, 글로벌 성혁명이 인류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인 성규범의 해체와 그로 인한 타락과 패륜의 확산, 끝으로 글로벌 성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한국 기독교가 감당해야 할 책임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급진적 페미니즘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의 변질과 그로 인한 폐해

오늘날 급진적 페미니즘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초기 페미니즘이 고질적인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고통받는 여성의 인권을 대변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 것은 인류 문명사를 전환시킨 대단히 고무적인 공헌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의 여성의 역사는 수천 년에 걸쳐 억압과 고난, 수치와 굴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4천 년의 서구 문명사에서 거의 3천8백 년의 역사가 남성들에 의한 부당한 성차별과 여성 혐오로 점철된 역사였다.⁶⁾ 특별히 한국의 여성들은 장구한 역사 동안 무수히 많은 외세의 침입과 식민지 지배, 그리고 분단의 현실 속에서 참으로 처절하게 한(恨)과 고난의 역사를 겪어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 여성들의 한과 고난, 수치와 굴욕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한국 근대 여성사의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19세기 중엽 여권신장·남녀평등 운동으로 시작한 페미니즘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페미니즘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상이 점차로 변해왔는데, 이를 크게 제1물결(1789~1914), 제2물결(1914~1990),⁷⁾ 제3물결(1990~)이라고 지칭한다. 특별히 1960년대 후반 이후 급진적으로 선화한 페미니즘은 매우 복잡한 분화와 치열한 논쟁을 거쳐 다양한 계파로 전개되었는데, 페미니즘의 계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⁸⁾ 1. 초기 페미니즘: 자유주의 여권론,⁹⁾ 2. 마르크스주

4) G. Kuby/정소영 역, 『글로벌 성혁명: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라』(서울: 밝은생각, 2018), 17.

5) 김영한, 『젠더주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 24f.

6) Cf. 정용석, 『기독교 여성사』(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37ff.

7) 1914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인데, 엄청난 전쟁은 수많은 전쟁 사상자들을 낳은 것은 물론 유럽 사회 자체를 근본적 바꾸어 놓았다. 특별히 여성의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여성 인권의 향상이었다. 국가 총력전 형태로 진행된 전쟁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남성들을 전선으로 보내야 했을 만큼 급박했기에 유럽의 남성들은 모두 징집 대상이 되었는데, 바로 그 남성들의 빈자리를 여성들이 채우게 되었던 것이다. 기존에 남성들이 하던 일들을 거의 여성들이 대체하게 됨으로써 직업에서의 남녀 구분이 점차 무의미해지게 되었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비로소 커질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것은 여성들이 사회적·정치적 권리 향상을 위한 투쟁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8) 이정훈,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서울: 킹덤박스, 2017), 71ff.

9) 자유주의 사상은 18세기에 서구 사회가 봉건제에서 자본제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이념으로서 인간의 본성이 이성애 있으며 만인은 이성적 존재로 동등하다는 사상이다. 이 사상에 힘입어 여성들은 남성들의 특권에 저항하게 되었다.

의 페미니즘: 여성 억압의 궁극적 요인을 자본주의 체제로 보는 페미니즘,¹⁰⁾ 3. 급진적 페미니즘 - 1) 생물학주의 페미니즘: 여성이 해방되려면 출산에서 해방됨은 물론 생물학적 가족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입장(S. Firestone¹¹⁾), 2) 문화주의 페미니즘: 여성 해방의 문화적·심리적 차원을 강조하는 페미니즘(K. Millet¹²⁾), 4. 사회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와 급진적 페미니즘을 결합시킨 페미니즘,¹³⁾ 5. 포스트모더니즘적 페미니즘: 여성과 남성의 성정체성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즘(J. Butler)이다.

초기 페미니즘이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건은 다름 아닌 ‘프랑스 68혁명’이다. 근대세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반발한 포스트모더니즘을 직접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68혁명인데, 이 혁명을 통해 기존의 권위와 근대적 위계에 대한 반항과 이데올로기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68혁명은 네오-마르크스주의(Neo-Marxism)의 영향을 받아 1968년 5월 파리의 대학생들이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불합리한 사회구조의 개선, 구세대의 관습과 문화의 해체 등을 기치로 시작한 이후 프랑스를 넘어 히피(hippie) 문화와 베트남 반전(反戰) 운동을 통해 국제화·조직화된 좌파 단체와 연계되어 전 세계적 문화혁명으로 확산되었다. 그런데 68혁명의 핵심은 서구세계가 자랑하던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의 영향으로 형성된 서구적 근대성의 해체이므로, 반(反)기독교적인 색채를 띠 수밖에¹⁴⁾ 없었다. 이러한 68혁명은 유럽에 살았던 한 세대의 사유체계를 혁명적으로 전복시킴으로써, 이들이 성장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계 전반을 장악하게 된 오늘의 시기에 유럽을 위시한 서구세계를 또다시 뒤집어놓게 되었다.¹⁵⁾

급진적 페미니즘은 ‘성’의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의 대상으로 삼은 ‘성정치-성혁명 이론’을 만나면서 다시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로 변질된다. 사상사에서 ‘성정치’라는 용어를 최초로 창안한 빌헬름 라이히(W. Reich)는 체제 전복이론인 마르크스주의(Marxism)의 사회과학적 분석(노동력에 대한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과 성욕 억압이론인 프로이트주의(Freudianism)의 인간정신적 분석(성충동에 대한 기독교윤리의 억압과 착취)을 결합하여 성충동 해방이론인 성정치학(sex-politics)을 주창하면서 정치가 거시적 제도의 차원을 넘어서 미시적 생활세계의 차원, 특히 사적인 성관계(이성애와 동성애)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라이히는 일부일처제 폐지와 성윤리 해체를 부르짖으면서 진정한 해방이란 성해방을 동반해야 하며, 성혁명을 이루기 위해선 성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라이히 이후 성정치 이론은 페미니즘과 결합하여 젠더 이데올로기로 발전했는데, 즉 성정치 이론을 만나면서 페미니즘은 여성 위에 군림하는 헤게모니(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의 가족제도)에 대한 파괴는 물론 남성과 여성의 성정체성을 해체시켜야 여성의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성정체성을 해체시키는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기까지 많은 동인이 상호작용했는데, 그 중에서 포스트젠더주의(postgenderism)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에서 파생된 포스트젠더주의는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건전한 페미니즘을 극단적으로 뛰어넘어 탈(脫)-성적 사회, 곧 무성(non-sexual) 사회 혹은 다성(multi-sexual) 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사조이다. 무성 사회란 남성·여성·중간자·성소수자·양성자 등의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사회를 말하는데, 포스트젠더주의가 무성 사회를 주장하는 근거는 1. 성별의 차이는 미세한 것이고, 2. 과학기술의 보안을 통해 성별의 구별이 불필요한 세상이 도래할 거라는 생각에 기인한다.¹⁶⁾ 즉 포스트젠더주의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성별의

10) 계급 모순이 기본적 문제라는 마르크스주의의 전제를 인정하면서 여성 억압을 낳는 궁극적 요인을 사적 소유제 혹은 근대적 자본주의 체제로 보는 이론이다: 위의 책, 71.

11) 솔라미스 파이어스톤은 급진적(혁명적) 유대인 페미니스트로서 1960년대 활동했지만 그가 예견했던 일들이 거의 대부분 현실화됨으로써 오늘날에도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에게 강한 영감을 주는 인물이다. 그는 남녀의 생물학적 생식 기능의 차이, 곧 남성이 정자를 제공하고 여성이 임신·출산하는 생물학적 현상으로 말미암아 여성이 차별당하는 젠더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확신 속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출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생물학적 가족을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피임과 낙태, 인공생식, 국가지원 양육의 확산 등을 통해 여성의 운명을 해방시킬 촉구하기도 했다.

12) 케이트 밀렛은 여성 차별의 근원보다는 차별을 재생산하는 기제 자체에 집중했는데, 곧 문화적·심리적 차원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발상이 완전히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문화주의 페미니즘으로 분류된다.

13)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어떻게 결합하여 성 억압을 발생시키는가에 집중함으로써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가족의 해체를 목표로 설정한다.

14) 미셸 푸코(M. Foucault), 질 들뢰즈(G. Deleuze) 등의 영향으로 등장한 주디스 버틀러와 그 이론을 변형해서 등장한 페미니즘으로서 여성과 남성이라는 구분 틀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사상은 친(親)동성애적인 젠더주의로 발전한다.

15) Cf. 이정훈,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58f.

16) 김성원, “포스트젠더주의와 동성애에 관한 분석비평 연구”, <제30회 기독교학술원 영성포럼: 젠더리즘, 네오마르크시즘, 트랜스 페미니즘과 기독교> 자료집, 23.

생물학적·사회적·문화적·심리적 역할을 파괴시킴으로써 성별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성 사회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 오늘날 포스트젠더주의는 성정체성의 해체와 동성애의 타당성의 이론적 기반을 강력히 제공하는 일등공신으로 등장하고 있다.¹⁷⁾

특히 포스트젠더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세웠던 급진적(혁명적) 유태인 페미니스트이자 앞서 언급했던 슬라미스 파이어스톤(S. Firestone)이 단연코 눈에 띄는데, 그가 무성 사회를 목표로 겨냥한 동기가 주목할 만하다. 남녀의 생물학적 생식 기능의 차이, 곧 남성이 정자를 제공하고 여성이 임신·출산하는 생물학적 현상으로 말미암아 여성이 차별당하는 젠더 불평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신을 야만적(barbaric)으로 묘사했던 파이어스톤은 여성 예측과 남성 지배의 성적·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위한 토대가 결국 남성과 여성의 생식적 역할에 뿌리박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¹⁸⁾ 이러한 생각에 기반하여 그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출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생물학적 가족을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공 자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에 이른다. 인공 두뇌(AI)를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인공생식을 담당할 것을 주장했고, 피임과 낙태, 국가지원 양육의 확산 등으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여성의 운명을 해방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로써 파이어스톤은 젠더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성적 계급(sex class)의 타파를 통한 페미니스트 혁명의 완수를 꿈꿨는데,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성과 남성성의 감옥에서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훨씬 더 강도 높은 변혁, 곧 생물학적·사회적 혁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파이어스톤은 1960년대 활동했지만 그가 예견했던 일들이 거의 대부분 현실화됨으로써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이들에게 강한 영감을 주고 있다.

이제 포스트젠더주의자들은 엄청나게 발전한 생명과학 기술을 발판삼아 파이어스톤이 추구했던 목표를 실행해 나가려고 한다. 그들은 생명공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복제기술과 체외수정 혹은 인공자궁과 시험관 아기가 보편화될 것을 예견하면서, 임신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래 여성들이 후사를 만드는 일에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할 거라고 주장한다.¹⁹⁾ 그들은 이 복제기술과 인공자궁이 생물학적 출산의 횡포에서 여성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한 성차별의 피해에서 여성을 자유롭게 할 거라고 말하면서 남녀로 구별된 성차별이 사라진 무성 사회의 도래에 대해 강한 확신을 드러낸다. 다가오는 세대에는 전통적 출산과 성별 이원화는 불필요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은 진화론적으로 퇴화되기 때문에 무성 사회는 필연적으로 도래할 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산모가 필요 없고 모유 수유도 없이 양육이 가능해짐으로써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살림을 꾸리는 전통사회적인 여성의 스테레오 타입은 무성 사회의 도래와 함께 쇠퇴할 거라고 역설한다.

무엇보다도 젠더주의가 글로벌 세계에 널리 확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젠더주의의 대표 주자 주디스 버틀러이다. 그 자신이 레즈비언이기도 한 버틀러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을 추종하는 동성애 옹호세력과 연대하여 젠더주의를 주창하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가 우려스러운 존재인 까닭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남녀 고유의 성정체성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들(LGBTIQA)을 규합하여 동성애를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버틀러는 자신의 저서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에서 젠더란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젠더 간에 불가피 트러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기술하면서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동성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근거하여 버틀러는 동성애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버틀러 자신이 레즈비언이기에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성 중심적 체제에서 고통당하는 여성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태동한 페미니즘이 성별을 해체시키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것은 인류 문명사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실 그 역사적 배경, 곧 성차별 문제가 인류 역사의 장구한 세월 동안 근절되지 못하고 고질적 악행으로 연綿히 이어져 내려온 현실은 너무나 참혹한 역사이기에 이에 대해선 치열하고 진정성 있는 문제 제기과 해결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문제 해결 방식이 인륜(人倫)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고 고귀한 인간 존재를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또 다른 병폐가 되어 인류 문명을 파탄시키는 대대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급진적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결합한 시대사조인 젠더 페미니즘이 강행하는 글로벌 성혁명으로 말미암은 악영향이 성규범의 해체로 이어지고,

17) 김성원, “포스트젠더주의와 동성애에 관한 분석비평 연구”, 19.

18) S. Firestone/김민예숙·유숙열 역, 『성의 변증법: 페미니스트 혁명을 위하여』(서울: 꾸리에, 2016), 11.

19) 김성원, “포스트젠더주의와 동성애에 관한 분석비평 연구”, 25.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타락과 패륜을 확산시킨다는 사실은 인류문명의 대재앙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젠더 페미니즘이 강행하는 글로벌 성혁명의 핵심전략: '젠더 주류화'의 문제점

젠더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성정체성의 해체는 21세기에 들어와 '젠더 주류화'(=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으로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다. 젠더 주류화는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²⁰⁾의 행동강령 (Beijing Platform for Action)을 통해 공식화되고 참여국들에게 촉구되었는데, 그 이래로 서구세계에서는 아무도 배척과 불명예를 무릅쓰고 반대할 수 없는 지배적 이데올로기,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는 전략 중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²¹⁾ 오늘날 젠더 주류화 정책은 글로벌 정치계와 재계·언론계·법조계·학술계의 주요 요직을 점유한 파워 엘리트들(power elite)의 배후에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젠더 주류화 정책의 주창자들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사회구조와 가치체계를 의도적으로 붕괴시키고 자신들의 젠더주의적 세계관을 확산시키는 현실이다. 더욱이 보편적 인류 문화에 대한 부정이 개개인의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파워 엘리트들에 의해 글로벌하게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점에서 심대한 우려를 자아낸다. 이것은 다수를 차지하는 억압계층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혁명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층이 주도하여 남녀의 성정체성이 해체된 새로운 국제질서, 글로벌 성혁명(global sexual revolution)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젠더 주류화가 고위층의 파워 엘리트들에 의해 강행되기 때문에 정치의 모든 차원에서 최고 순위를 차지하는 전략이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체제 전반에 막대한 폐해를 끼칠 수 있는 무서운 정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 주류화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다수 사람(일반인은 물론 전문가에게조차)에게 생소한 현실인데, 이것은 오늘날처럼 개명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²²⁾ 그만큼 젠더 주류화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공개적 논의 없이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만 거론되고 있으며, 선동적 선전과 기만적 용어조작으로 인해 그 실제적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젠더 주류화의 실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젠더 주류화에 대해 '여성이 사회의 주류 영역에 참여하여 의사 결정권을 획득하는 형태로 사회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성차별 철폐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젠더 주류화가 겨냥하는 '성차별 철폐'는 종국적으로 차별의 근원이 되는 남녀 성정체성의 해체, 즉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법은 한계가 있으니 아예 성별을 해체시켜 버리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결혼 및 가족제도가 왜곡된 성역할과 이에 따른 성적 위계질서를 파생시키기 때문에 이 또한 해체시켜 버리자는 것이 젠더 주류화의 숨은 전략이기도 하다.

젠더 주류화가 남성과 여성의 성정체성의 해체를 주요 목표로 삼았던 것은, 앞서 언급했던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사실상 젠더 주류화의 사상적·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버틀러 자신이 레즈비언이기에, 젠더 주류화는 애초부터 성소수자들(LGBTIQA)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젠더 주류화가 무서운 것은 헌법에서 조례까지 이 젠더주의의 젠더 인지적 관점(= 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에서 모든 법체계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모든 공권력이 젠더 인식을 반영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이념을 담기 때문이다. 젠더 주류화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남녀평등을 급진적으로 뛰어넘어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하는데, 즉 젠더 주류화가 지향하는 '젠더 평등'에서 평등이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남녀 양성 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이를 해체시켜버리고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평등,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해체된 절대적 평등(모든 사람의 성적 동일성)에 가깝다.²³⁾

이러한 젠더 주류화를 국제기구와 공권력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특별히 유엔(UN)과 유럽 연합(EU)이 글로벌 성혁명을 이룩할 전략으로서 강행하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²⁴⁾ 68혁명 세대 중에서 학술적으로 교육받은 핵심그룹이 글로벌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언론·종교계 전반에 주도권을 걸머진 상황 속에서 현재 이들에 의해 장악된 국제기구들은 명백히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젠더 주류화를 주된 사명 중 하나로 삼고

20) 이 대회는 세 가지 목표, 곧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평등,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의 해체, 규범적인 강제적 이성애의 해체를 실현하기 위한 대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 G. Kuby, 『글로벌 성혁명』, 155.

22) 위의 책, 147.

23) 박서영, “네오막시즘과 동성애”, 입력: 2016.06.09, © newspower

24) G. Kuby, 『글로벌 성혁명』, 81-102, 129-146.

있다. 이 혁명세대들은 성혁명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유엔을 젠더 주류화 운동의 본부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젠더 주류화를 권고안과 선언서, 협약 등의 형태로 강행함으로써 세계 각국 행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타락과 패륜의 길을 걸었던 68혁명의 정신을 젠더 주류화로 실현하고자 유엔을 통해 세계 지배의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다.²⁵⁾ 유엔이 젠더 주류화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강행하는 추세 속에서 가입국 별로 유사한 전략, 유사한 방식, 유사한 단계를 거쳐 젠더 주류화를 완성하도록 위력을 행사하는데,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영국(Equality Impact Assessment), 캐나다(Gender Based Analysis), 뉴질랜드(Gender Analysis), 독일(Working Aid) 등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형태로 채택된 젠더 주류화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오늘날 유엔을 위시한 국제기구들이 동성애 옹호세력에 의해 장악되는 현실이다. 유엔과 산하기관들은 남성과 여성의 성정체성을 해체시키고 결혼 및 가족제도를 파괴시키는 정책을 강행하는 가운데 동성애 옹호를 위한 사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유엔과 유럽연합의 공식적 산하기관을 통해 성소수자들을 위한 아젠다에 수천, 수억 달러의 기금이 흘러들어가지만, 이것은 공식적 예산 집계에 드러나지 않는다.²⁶⁾ 1960년대 후반을 분기점으로 불과 반세기 만에 인류 문명의 기본적 근간이 허물어지게 된 것은, 글로벌 국제기구들과 세계 각국 행정부 수장들이 중추세력이 되어 젠더주의에 기반한 성혁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은 전 세계인들의 희망의 등불이었지만, 현재는 위험한 문화인류학적 혁명의 선봉에 서 있는 듯하다. 평화에 대한 유럽인들의 열망으로 탄생한 유럽 연합 역시 50년이 지난 작금에는 젠더주의를 대변하는 권력기구로 변질된 듯하다. 불과 수십 년 사이 유력한 국제기구들이 전통적 가치체계를 전복시키고 성소수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권력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것이다.²⁷⁾

사실 유엔 총회나 이사회가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적은 없으나, 젠더주의 추종자들은 세계 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해 온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이름을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용하는 가운데 이를 성혁명을 추진하는 활동 엔진으로 삼고 있다.²⁸⁾ 이들은 유엔의 핵심층을 공략하여 동성애 문제를 차별받는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프레임으로 선동함으로써, 동성애라는 대단히 비윤리적인 현실을 철저히 은폐할 뿐만 아니라, 반동성애 활동을 마치 사회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반지성적 행태로 오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현실은 이들이 막강한 국제기구와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동성혼(同性婚) 법제화를 강행하는 한편으로, 영향력있는 메스미디어와 인권단체를 이용하여 반동성애 세력의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이른바 ‘동성애 파시즘(homofascism)’이 횡행하는 현실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동성애를 단순히 동성 간의 애정행각이나 성도덕의 측면에서만 인식해왔지만, 젠더주의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들은 동성혼 합법화 정치투쟁을 사회주의 혁명 그 자체로 본다.²⁹⁾ 전 세계 인구의 0.1%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를 합법화(동성혼)하는 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글로벌 성혁명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결혼과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결혼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³⁰⁾

여기서 동성애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지난 세기 동안 급진적으로 변화된 상황을 간략히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심리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 칼 융(C. G. Jung), 알프레드 아들러(A. Adler)의 영향 아래 동성애는 심리학적 성정체성 장애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APA)가 고위층을 점유한 동성애 옹호세력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는데, 바로 이것이 동성애에 대한 그동안의 판세를 역전시키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추후 동성애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토론 자체를 차단시켜 버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17년 후 세계보건기구(WHO)가 APA의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오늘날에는 동성애가 ‘자연의 변이’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남성 동성애자들 위에 드리워진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인 치명적 자가면역질환(HIV/AIDS)이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정신질환, 특히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자살충동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살률이 이성애자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³¹⁾ 이처럼 상황이 위중함에도

25) 이정훈,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59.

26) G. Kuby, 『글로벌 성혁명』, 118.

27) 위의 책, 305.

28) 김영한, 『젠더주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 66.

29) Cf. 이정훈,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17.

30) G. Kuby, 『글로벌 성혁명』, 235.

마땅히 책임감있게 역사 변혁을 선도해야 할 국제기구와 공권력이 동성애와 관련된 부조리한 현실을 은폐하고 동성에 옹호활동을 감행하는 일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만한 직무 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당화하기 위한 젠더 주류화 전략의 위험성을 감지한 독일 튀빙엔(Tübingen) 대학의 복음주의 선교학자 페터 바이어하우스(P. Beyerhaus)는 2016년 6월 방한하여 이와 관련된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즉 그는 1789년 프랑스 혁명(정치적 신분제를 전복시킨 혁명), 1917년 볼셰비키 혁명(경제적 계급제를 전복시킨 혁명)과 함께 젠더 주류화 운동을 '제3의 세계사적 혁명'(생물학적 질서를 전복시킨 문화인류학적 성혁명)이라고 일컬으면서 인간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남성과 여성의 성의 질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인류 문명사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운동이라고 지적하였다.³²⁾ 그러면서 바이어하우스는 이것이 인간에게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을 창조질서로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부정하는 사탄적 원천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신론적·무신론적 이데올로기라고 역설하였다.³³⁾ 이미 2012년 12월 21일에 교황 베네딕트 16세도 젠더 이데올로기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비(非)진리성과 그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인류학적 혁명을 경고하기도 했다.³⁴⁾

4. 글로벌 성혁명의 악영향: 성규범의 해체로 인한 타락과 패륜의 확산

21세기 들어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가열차게 강행하는 것은 바로 글로벌 성혁명인데, 이 성혁명의 핵심은 바로 성규범의 해체이며 그로 인한 악영향은 사회 전체의 성애화(性愛化, sexualization)를 통한 타락과 패륜의 확산이다. 성혁명이 한창 진행 중인 서구세계에서는 성규범이 와해되고 도덕적·윤리적 기준의 해체가 강요됨으로써 음란의 규범이 형법을 통해 강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³⁵⁾ 성과 관련된 강력한 규범들이 급속도로 풀려서 사람들이 점점 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특히 동성애가 또 하나의 묵인된 성문화, 또 다른 인류의 대체적 쾌락이 되어가고 있다.³⁶⁾ 2015년 6월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법화 판결 이전에 동성혼에 관해 토론할 때, 수많은 사람이 동성혼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크게 우려했었다. 그 다음 단계는 명백히 '폴리아모리'(polyamory, 다자성애 및 복수연애)로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완전한 재정의가 될 거라고 예단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예단은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성도덕의 규제 완화는 문화가 부패한다는 징후인데, 이것은 개인에게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도 야기할 것이다. 이혼의 급증으로 인한 가족공동체의 붕괴, 광범위한 정신·심리적 장애의 만연, 사라져가는 질병이었던 성병의 전염병적 유행,³⁷⁾ 엄청난 수요의 태아를 죽이는 일 등은 사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신호인 것이다.

사실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생사와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성규범은 가장 사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공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희로애락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성도덕이 무너져 버리면 한 개인은 물론 가정공동체와 사회공동체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 국가공동체, 심지어 문명 전체가 붕괴되어 버린다. 이런 연유로 인해 인류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성적인 일탈을 강력한 사회적·법률적 제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성규범은 오랜 역사 속에서 엄격한 처벌 규정으로 보호되어 왔던 것이다. 성규범이 해체되는 기재에는 사람들이 부(富)를 급격하게 축적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자 재미를 삶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특히 성을 삶의 중심에 두게 되었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날카롭게 사태를 분석하면 이것이 성을 매개로 정치하려는 세력들, 바로 성혁명을 강행하려는 세력

31) 화이트헤드(N. E. Whitehead)는 동성애자의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8배 더 높으며, 동성결혼을 인정해 주는 노력에도 이들의 자살률을 낮추지는 못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지연, “동성애의 보건의료적 문제점”,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 자료집 (2018.1st), 152에서 재인용.

32) P. Byerhaus, “Widersteht gegen Gender-Ideologie!”(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라!), 2016년 6월 10일, <기독교학술원> 제 10회 해외석학 초청강연 자료집.

33) 김영한 외,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15f.

34) 김영한, 『젠더주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 73에서 재인용.

35) G. Kuby, 『글로벌 성혁명』, 68.

36) 곽혜원, “여성신학자가 바라본 퀴어신학의 이단성 문제”, <신학과 윤리 포럼> 자료집(2018.08.08.), 28.

37) 매독이나 임질같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성병이 귀환했고, 새로운 유형의 성병이 전염병 수준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치명적인 것은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그리고 자궁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성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이다.

들의 전략 때문이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성혁명 세력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젠더 주류화에 관해 언급했는데, 특히 그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의무교육의 필수 교과목으로서의 성교육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성애화와 그 폐해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성혁명이 한창 진행 중인 서구세계의 학교에서는 의무적 성교육이 실시되는데, 이로 인해 10대들의 성애화가 강제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이 의무화될 당시에는 단순히 정보제공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로 성의 영역에서 도덕성을 말살시켜 버리는 방향의 주입식 세뇌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이들 내면에서 전통적 도덕기준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수치심에 대한 감각을 파괴시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³⁸⁾ 전 세계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성애화를 촉진시키는 단체들에는 유엔 산하단체(대표적: 유네스코)도 개입되어 있는데, 이 단체들은 이른 아동기부터 성적 존재로 각인시키고 성적 충동을 활성화시켜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한계를 제거하는 데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글로벌 성혁명의 대리인들로서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기초한 가족의 기반을 파괴하기 위해 성적 도덕 기준의 완화를 유력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릇된 성교육에서 비롯된 아동과 청소년의 성애화로 인해 조기 성관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것은 공권력과 학교, 언론이 끊임없이 성으로 아이들의 뇌리를 사로잡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는 어린 시절의 조기 성행위가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 가능성을 방해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³⁹⁾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미리암 그로스만(M. Grossman)도 조기 성관계의 위험성, 특히 소녀들의 이른 성행위의 위해성을 폭로하였다.⁴⁰⁾ 미국 청소년 건강추적조사의 데이터는 성적으로 활발한 10대가 성행위를 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우울증과 자살위험이 훨씬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⁴¹⁾ 그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경험하는 상호 헌신에 바탕을 두지 않은 난잡한 성행위, 특히 동성간 성행위가 불러오는 부정적 결과는 과학적 연구에 의해 이미 수차례 입증되었는데, 곧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깊은 실망과 심리적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시기의 문란한 성행위로 인한 제반 부작용(대표적: 성병 감염으로 인한 영구 불임)은 개인적 인생 파탄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⁴²⁾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악을 위한 나침반이 필요한데, 특별히 성은 도덕의 닻에서 분리될 때 필연적으로 영적·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기에 이에 대한 올바른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조기 성접촉으로 인한 피임의 위험, 성병의 전파, 낙태로 인한 장기적 위험, 깨어진 인간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상처 및 동성애의 위험성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만약 우리가 아이들의 성애화를 방관한다면, 그것은 마치 독사가 아이들 방으로 기어들어 가는데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형국일 것이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선 이들이 어린 시절을 잘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 급선무이다. 아이들에게는 성적인 욕구와 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진무구한 동심을 보호해주는 환경, 성적인 공격이나 학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공간, 마음껏 창조적 놀이와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누릴 권리가 있다. 또한 사춘기는 공부를 하고 우정을 쌓으며 세상을 발견하고 즐겁고 활기차게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국가와 교육기관, 미디어는 이들이 성적으로 함몰되게 만드는 모든 유해한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건강한 결혼과 가족을 위해 다음세대를 준비시킬 의무가 있다.

사실 건전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권력과 학교, 언론이 시행하는 아이들의 성애화 교육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애화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성애화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는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왜 이 사안이 국가적 안건이 되지 않는 것인가? 왜 이것이 사회가

38) G. Kuby, 『글로벌 성혁명』, 302.

39) S. Freud, *Gesammelte Werke*, Fr.a.M.: S. Fisher Verlag, Vol.V, 136.

40) M. Grossman, "You are Teaching My Child What?", cit., note 5, 35 et seq.

41) <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03/06/sexually-active-teenagers-are-more-likely-to-be-depressed>(2015.10.07)

42) 미국에서는 매년 1,900만 건에 달하는 새로운 성병이 발생하는데, 감염자 중 절반이 15-24세 젊은이인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성적으로 왕성한 청소년들이 가장 위험한 집단인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10대 소녀 중 25%가 성병을 앓고 있으며, 매년 2만 4천 명의 여성이 성병으로 인해 불임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가브리엘레 쿠비는 성애화가 매독과 임질 발병률을 다시 높였으며, 많은 젊은 여성들을 영구적 불임으로 만드는 성병의 폭발적 확산을 불러왔다고 진단하고 있다: G. Kuby, 『글로벌 성혁명』, 314, 330.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사회적 질환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인가? 왜 이를 척결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명백한데, 이것은 곧 타락과 패륜이 만연한 성중독, 음란물의 전염병적인 범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미 대중적 현상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대의 문화는 성적 욕망을 통제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섹스의 즐거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끊임없이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는 성욕 과다 사회가 욕구 충족 대상으로 가장 취약한 무방비 상태에 놓인 아이들을 악용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⁴³⁾

이 시대가 성중독이 일상화된 성욕 과다 사회라는 것은 포르노가 범람하는 세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오늘날 성혁명이 휩쓸고 지나간 서구세계에서는 포르노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일반화된 현실이다. 수십 년 전 포르노는 출판 미디어나 비디오, 성인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로만 제한되어 성인 남성들이 배타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이제 포르노는 나날이 발전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광범위하게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재앙'으로 급부상하고 있다.⁴⁴⁾ 포르노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접근 가능함으로써 모든 사회, 모든 계층, 모든 직업, 모든 연령대에서 포화상태에 있다. 최근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의 수요는 가히 충격적인데, 인터넷 사용자 4명 중 1명(특히 18~34세 남성의 경우 66%)은 매일 포르노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청소년기의 남아아이들에게 포르노의 소비는 이제 일상화된 상태이고, 아동 포르노 시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보고되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포르노 소비자의 3분의 1이 여성인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우 41%의 여성이 최소한 한달에 한번은 포르노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1천만 명 이상의 여성이 규칙적으로 음란물을 소비한다는 사실이다.⁴⁵⁾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한국 사회는 이러한 미국 사회의 포르노물 홍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⁴⁶⁾

오늘날 미디어의 시대는 악의 이미지로 인간의 정신에 지속적인 상흔을 남기는 시대인데, 이 이미지들은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인간의 생각과 판타지, 꿈을 점령하고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물이나 공기, 음식의 청결함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가장 해로운 음란물 쓰레기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연예 오락물'이라는 명목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몸에는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메커니즘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영혼을 위해선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음란물의 이미지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잡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에 대해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⁴⁷⁾ 포르노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영적·육체적·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해악을 끼친다. 포르노가 생명을 지속시켜 주는 관계를 파괴하고 병적으로 사람들을 중독시킨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힘겹게 싸우는 모든 음란물 중독자들이 한목소리로 보고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포르노를 통한 이 세계의 음란화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전체 사회에 재앙과도 같은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성애화 및 이 세계의 음란화를 획책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에 대해 가브리엘레 쿠비(G. Kuby)는 그의 저서 『글로벌 성혁명』(*The Global Sexual Revolution*)에서 다섯 부류를 언급했는데, 이 중에서 세 부류, 곧 1. 글로벌 전략의 목표달성을 위해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근본없는 인간들을 양산하려는 세력, 2. 종교, 특히 기독교 제거에 관심이 있는 세력, 3. 이성애적 성규범의 해체를 도모하는 세력이 주목할 만하다. 먼저 글로벌 성혁명이란 목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선 아무런 반대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만만한 인간들'이 지배하기에 부담 없을 것이다. 기독교 윤리는 이 시대의 잘못된 세태를 사사건건 비판하기에, 이 역시 제거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성애자들도 사라져야 할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의 존재로 인해 인륜을 거스리는 동성애자들의 부자연스런 행태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와 공권력이 그릇된 통치력을 행사할 때 정당하게 의사표시를 하면서 저항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특별히 글로벌 성 해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동성혼 합법화를 강행하는 국가의 법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저해할 경우 강인한 영성으로 항거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에 대해 합리적 비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계속해서 공권력을 앞세워 동성혼 합법화를 강행할 경우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⁴⁸⁾

43) G. Kuby, 『글로벌 성혁명』, 322.

44) 위의 책, 186.

45) Th. Schirmacher, *Internetpornografie*, Holzerlingen: Hänssler-Taschenbuch, 2008, 18.

46) 김영한, 『젠더주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 68.

47) G. Kuby, 『글로벌 성혁명』, 186f.

48) 영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될 당시 동성애자들은 2%밖에 안 되었고 기독교인은 80%였지만, 80%의 기독교인이 침묵함으로써

5. 젠더 페미니즘이 강행하는 글로벌 성혁명에 직면한 한국 기독교의 과제

1) 기독교적 가치체계를 후대에 전수할 다음세대, 한민족과 한국 기독교를 이끌 미래세대를 살리는 가족 중심의 성결한 성윤리가 절실히 요청된다.

고대 이교도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는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었다. 이스라엘 근동에는 절제된 성규범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방 족속들은 동성애(homosex)와 근친상간(incest), 수간(zooophilia) 등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했지만, 이 음란하고 패역한 이교도 세계에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은 이전엔 전례가 없는 거룩한 성혁명이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성의 경계를 넘고, 근친상간을 통해 혈연간의 경계를 넘고, 동물과의 성관계를 통해 생물 종간의 경계를 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셨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성행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안에서 거룩해지고 보호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가족의 기초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다음세대(기독교 신앙을 후대에 전수할 미래세대)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를 수천 년 동안 생명처럼 존중해왔는데, 왜냐하면 가족이야말로 종족이 멸절당하는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한 원초적 생명력이 되었음을 몸소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이다.⁴⁹⁾ 그러므로 유대 민족의 삶은 물론 유대 문명의 기반은 가족생활 중심의 성결한 성규범이며, 바로 이것이 성서가 독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족의 중요성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시대상황 속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특별히 필자는 죽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로서 존엄한 삶·존엄한 죽음·존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에 몰두하면서 건강한 가족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정적 유대관계는 삶의 질은 물론 죽음의 질도 좌우하는 중요 조건, 곧 삶의 존엄·죽음의 존엄·인간의 존엄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현대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현안 중에서 긴급히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사회문제인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방기제도 건강한 가족이다.⁵⁰⁾ 가정공동체가 무너져서 가족의 따뜻한 지원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고독사(孤獨死)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중요성을 확연히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족관계는 서로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개개인과 사회구성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정서적 안전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건강한 가족관계의 구축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사명을 위해서도 중차대한 일이다. 아동 및 청소년은 갈등이 적은 결혼생활을 하는 생물학적 어머니·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장 잘 자라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은 건전한 사회인이자 신실한 신앙인을 배출할 수 있다. 특별히 “젊은이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격언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성혁명이 행하는 문화인류학적 전쟁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지를 결정하는 말일 것이다. 만일 어떤 세대가 그 조상들로부터 인간이 반드시 지녀야 할 미덕을 전수받지 못한다면, 그들 역시 다음세대에 이를 전수해주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과 가치체계가 한 세대를 거쳐 다음세대까지 전승되지 못하면, 기독교 전통은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다음세대의 출석수가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가브리엘레 쿠비(G. Kuby)의 말대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격언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⁵¹⁾ 진정 건강한 가족이 가장 중요한 정서적 안전망이라면, 가장

인해 현재 영국교회는 영적으로 빈사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도 관용이라는 미덕을 내세워 동성애 물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오바마 정권의 동성애 합헌화 정책에 굴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한국교회는 서구 교회들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이다.

49) 위의 책, 266.

50) 가족의 정서적·사회적 지지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행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그 결과들에 의하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분리된 가운데 가족과 갈등이 많은 반면,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살행동의 양상이 매우 낮아진다. 그러므로 가족의 따뜻한 후원과 진심어린 격려,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과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형제자매의 존재는 자살의 훌륭한 방어요인이 될 수 있다: 광혜원, 『자살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2011), 71f.

51) G. Kuby, 『글로벌 성혁명』, 301f.

중요한 영적 안전망은 바로 신앙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의 책임적 과제가 막중한데, 역사적으로 볼 때 가족 중심의 성규범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저항은 항상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⁵²⁾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는 변함없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시대사조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세상을 부패시키지만,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이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결해지게 된다. 시대사조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강하게 지배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순교자들이 빛나는 성상(聖像)이 되어 이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희망과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⁵³⁾ 인류 문명의 무모한 도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보편타당한 윤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 공동체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종교들이 일체 함구하면서 불의한 타협의 길을 걷어가는 데 반해, 기독교는 동성애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반(反)인권적 폐해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위생적 문제⁵⁴⁾를 고발함으로 반(反)동성애를 표명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력의 연합, 일명 ‘악의 연합’이 이루어져 기독교를 핍박하는 위태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현재 그리스도인은 점차로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는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글로벌 성혁명 세력은 기독교를 철저히 적으로 간주하는데,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려면 이를 지탱하는 가족제도와 인간의 성을 혁명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하는 교회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교회들은 특별히 한국교회를 주목하는데, 이제 한국마저 무너지면 더 이상 동성애 문제를 성서적 해법으로 해결할 국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중한 시대적 책임을 짊어진 한국 기독교는 의에 살고 의에 죽는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일념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여러 전문가들과 연합하여 다각도로 치밀하고 지혜로운 자세가 절실히 요청되는데, 특별히 대내적으로는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queer theology)의 이단성을 규명하는 한편으로, 대외적으로는 동성혼 합법화를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다.⁵⁵⁾

2) 한국 기독교 안에서 여신도의 존엄성이 훼손된 상황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회복된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급진적 페미니즘의 변질된 시대사조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 크리스천 여성의 과제를 상고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행하는 중추세력이 급진적 페미니스트, 바로 여성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인류역사에서 파괴적 결과를 가져온 이데올로기 체계를 발전시킨 것은 거의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오늘날 글로벌 성혁명은 인류문명사 최초로 여성들이 주도한 혁명이다. 그렇다면 ‘왜 페미니즘은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는가?’, ‘왜 여성들은 결혼 및 가정을 해체시키는 성혁명을 강행하게 되었는가?’ 성차별적 체제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인권신장 운동에서 출발한 페미니즘이 급진적 페미니즘을 거쳐 성별 해체를 감행하는 젠더주의로 변질되기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특히 고질적인 여성차별 역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법은 한계가 있으니 아예 성별을 해체시켜 버리자는 극단적 방향으로 치닫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차별의 강고한 질서인 결혼 및 가족질서를 파괴시켜 버리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오랜 장구한 세월 극도로 억압받아왔던 여성들의 복잡한

52) 위의 책, 265.

53) 미국의 보수 가톨릭 대변인 프랜시스 조지(F. E. George) 추기경은 죽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어록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나는 내가 침대에서 편안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뒤를 잇는 사람은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의 뒤를 잇는 사람은 광장에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뒤를 잇는 사람은 무너진 사회의 남은 조각들을 모아 인류 역사에서 교회가 늘 그래왔듯이 서서히 문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돕게 될 것이다.”

54)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팀”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HIV/AIDS 감염인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HIV/AIDS 감염의 발생은 서서히 감소하는 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의 신규 HIV/AIDS 감염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젊은층(18~29세)의 감염 실태가 매우 심각한데, 주된 감염 경로로 동성 및 양성 간 성 접촉(71.5%)으로 지목되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HIV 감염 증가의 첫1단계는 남성 간 성행위 때문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김준명, “국내 HIV 감염의 감염 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 <성과 생명 윤리 포럼> 자료집(2018.10.15), 27ff.

55) Cf. 곽혜원, “여성 신학자가 바라본 퀴어 신학의 이단성 문제”, <신학과 윤리 포럼> 자료집(2018.08.08.), 33.

심경, 곧 상처와 좌절, 분노를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페미니스트들은 성차(性差)가 생물학적 결정이 아닌 사회적 관행의 결과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성별을 의미하는 섹스 대신 젠더를 그토록 종용했던 것이다.

사실 여성차별이 고질적 악행으로 연면히 이어져 내려온 현실은 너무나 참혹한 역사이기에 이에 대해선 진정성 있는 해결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여성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 수치와 굴욕을 겪으며 모질고 한많은 인생을 살다갔는지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 존 스토틀(J. Stott)는 여성 억압이 너무나 장구한 세월 만연되어 왔기 때문에 남성 지배적 사회가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페미니즘이 여성들이 성별 때문에 제도적·사회적 불의로 고통을 받는다는 확신에서 나온 ‘성별에 근거한 불의를 철폐하는 운동’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성들의 정의에 대한 외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모든 형태의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서 ‘정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에 긴급한 과제를 던진다는 것이다.⁵⁶⁾ 이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점점 더 거세게 교회 안으로 밀려오는 페미니즘에 응답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장구한 인류 역사의 폐습이었던 여성차별의 고리를 끊고 여성의 존엄성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차대하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목적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문제해결 방식이 인륜(人倫)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고 고귀한 인간 존재를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또 다른 병폐가 되어 인류 문명을 파탄시키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성차별적 체제에서 고통당하는 여성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인권신장 운동에서 일어난 초기의 건전한 페미니즘이 급진적 페미니즘을 거쳐 성별의 해체를 감행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것은 문명사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크리스천 여성들의 역할과 사명이 대단히 중차대하다는 사실을 직감한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주축이 되어 이 세대를 전복시키려는 위기의 역사적 국면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거시적 혜안과 인류의 안녕을 최우선적 가치로 생각하는 사려깊은 책임감, 건강한 가족공동체를 구축하려는 건전한 사고, 무엇보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 여성의 역할과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끝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여성의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오늘날 일반 사회의 진일보한 변화와 달리, 한국교회에서 여성은 예나 지금이나 남성의 그늘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여신도 수가 남신도 수보다 월등히 많지만, 대다수 교단은 교회법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위계질서를 고수하고 있다. 여성이 성직(聖職)을 임명받을 수 없는 현실 이면에, 교회의 모든 허드레 일은 여신도의 몫이다. 극소수의 교단만이 여성의 장로 임직과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성 사역자는 남성 중심의 차별구조를 감수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성 목회자에 의한 성범죄가 여전히 은폐·축소되는 가운데 성폭력에 대한 징계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지적으로 우수한 여신도들이 남녀차별의 장벽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실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국 신학계와 목회 현장에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뿌리내려야 한국교회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향해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서 여신도와 여성 사역자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때,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조직신학은 남성과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회복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3) 남성과 여성 간에 극단적 혐오의 분리주의를 극복하고 양성이 서로 함께 상생(相生)연대(連帶)하는 새로운 여성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2018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 ‘페미니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최근 한국 사회에는 급진적 페미니즘, 정확히 표현하여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의 열풍이 휩쓸고 있는데, 이 열풍은 대학가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트렌드가 됨으로써 페미니스트 전성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사실 장구한 여성 억압적 역사를 회고하면서

56) J. Stott/정옥배 역,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서울: IVP, 2011), 367.

숨죽이며 살아온 여성으로서 페미니스트 전성시대가 격세지감을 느끼게도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는 페미니즘 현상이 극심한 남녀 분리주의를 통해 사회갈등 및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성 간의 조롱과 비아냥이 점점 극대화되고 여성 혐오(여혐), 남성 혐오(남혐), 극단 혐오(극혐)를 뜻하는 저급한 용어들이 마구잡이로 양산됨으로써 사회적 병리현상으로까지 치달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페미니즘에 대한 젊은 남성들의 반감의 수위가 높아지더니, 페미니스트들이 상종 못할 공공의 적 취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한국 남성들을 향해 극단적 혐오를 쏟아냄으로써 ‘미러링’(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감정의 동조현상)으로 대항하고 있다. 구세대 남성들과 달리 양성평등 관계 속에서 성장한 젊은 남성들은 급진적 페미니즘의 남성 혐오에 반발하면서 역차별을 항의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 논란이 일어나게 된 발단은, 2015년 8월 여성 혐오에 대항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남성 혐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메갈리아가 등장한 시초는 2015년 6월 메르스가 발병했을 당시 최초 감염자가 남성으로 판명되자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내에 만들어진 메르스 갤러리에서 일부 여성들이 과격하게 남성 혐오를 드러내면서 이용자와 마찰을 겪다가 따로 떨어져 나와 사이트를 만들면서이다. 그리고 메갈리아의 과격한 활동으로 인해 논란이 커지자 메갈리아 운영진과 회원들은 극단적 남성 혐오카페 ‘워마드’를 개설하게 되었다. 워마드는 자신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워마드는 여성운동 단체가 아니다. 워마드는 남성 혐오, 여성 우월 사이트다. 워마드는 99% 남혐과 1% 염산으로 이뤄져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워마드 사이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저급한 글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음란물, 심지어 아동 음란물도 공유한다는 점이다. 메갈리안들의 강령이자 행동지침인 페미니즘(페미니즘+나치즘) 선언문은 공공연히 파시스트적 성향을 띠는데, 이는 문자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표현이 극도로 저속한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메갈리안들이 남성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페미니즘을 표방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명백한 페미니즘 도용인데, 이를 통해 메갈리안들이 페미니즘의 보편적 이론마저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18세기 말엽 여성 참정권 획득을 위한 투쟁으로 시작된 페미니즘은 1960년대 미국의 급진적 페미니즘에 이르러 본궤도를 벗어나면서 외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페미니스트들이 미국의 한물가버린 급진적 페미니즘을 21세기 대한민국에 수용하여 이를 확산시키고 있으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려면 양성 간의 극단적 혐오를 통한 분리주의를 넘어서 상호 협력·연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결과 혐오를 부추기는 페미니즘, 여성만의 권한 강화에 주력하는 페미니스트 운동이 아니라, 제도 변화와 정책을 통해 양성 평등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21세기에는 남녀 혐오의 분리주의를 극복하고 양성이 함께 협력·연대하는 새로운 여성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시점이다. 21세기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여성운동의 실천, 곧 남성을 적이 아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상호 협력 파트너이자 동료로 인정하는 양성 평등을 중심부에 둔 새로운 여성운동이 요청된다.

이제 새로운 여성운동은 남녀 간에 서로 혐오하고 적으로 대하는 양성 대결이 결코 아니라, 협력하고 연대하는 양성 평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남성의 문제와 여성의 문제는 상호 연관됨으로써 서로 연대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높은 수준의 양성 평등을 이룬 북유럽 국가들은 남녀를 갈라놓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국가는 국민의 집이고 사회는 가족이라는 사회통합 정신 속에서 성차별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으로 양성 평등 사회를 이뤄나가고 있다.⁵⁷⁾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여성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남성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연대하여 싸워야 할 사안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고 남성과 남성이 분리되고 여성과 여성이 분리된다면, 사회의 기본 틀인 연대의 정신이 무너지고 종국에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 3:28)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새로운 여성운동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상당수 페미니스트들이 그러하듯이 성적으로 방종하는 ‘폴리아모리’(다자성애·복수연애)에 절대로 동조할 것이 아니라, 성적인 절제 속에 가정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권고하고자 한다. 이미 급진적 페미니즘의 본산지인 미국에서는 페미니즘의 새 조류가 일

57) 오세라비,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혐오에서 연대로』(서울: 좁쌀한알, 2018), 21ff.

어나고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가정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⁵⁸⁾ 미국의 페미니스트 에밀리 맷차(E. Matchar)는 가정으로의 복귀를 페미니스트 운동의 역주행이라기보다, 페미니스트 운동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주장한다.⁵⁹⁾ 앞 절에서 필자는 건강한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는데, 가정이 건강하지 못할수록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사회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갈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로서 필자가 예단하는 바로는 다수의 섹스파트너들과 복수연애하면서 성적으로 방종하는 삶을 살다가 가정이 파탄나고 가족관계가 깨어진 상당수 싱글들이 인생 말년에 고독사의 직격탄을 맞게 될 거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건전한 가정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도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공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를 구축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깊이 유념할 때, 결혼 및 가족제도를 해체시키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려는 글로벌 성혁명의 파고 앞에 서 있는 새로운 여성운동은 가장 중요한 정서적 지원망인 가정을 ‘살리는 여성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58) 위의 책, 202f.

59) E. Matchar/허원 옮김, 『하우스 와이프 2.0』(서울: 미메시스, 2015), 302.